

2023년 국내외 경제 및 산업 전망

I. 국내외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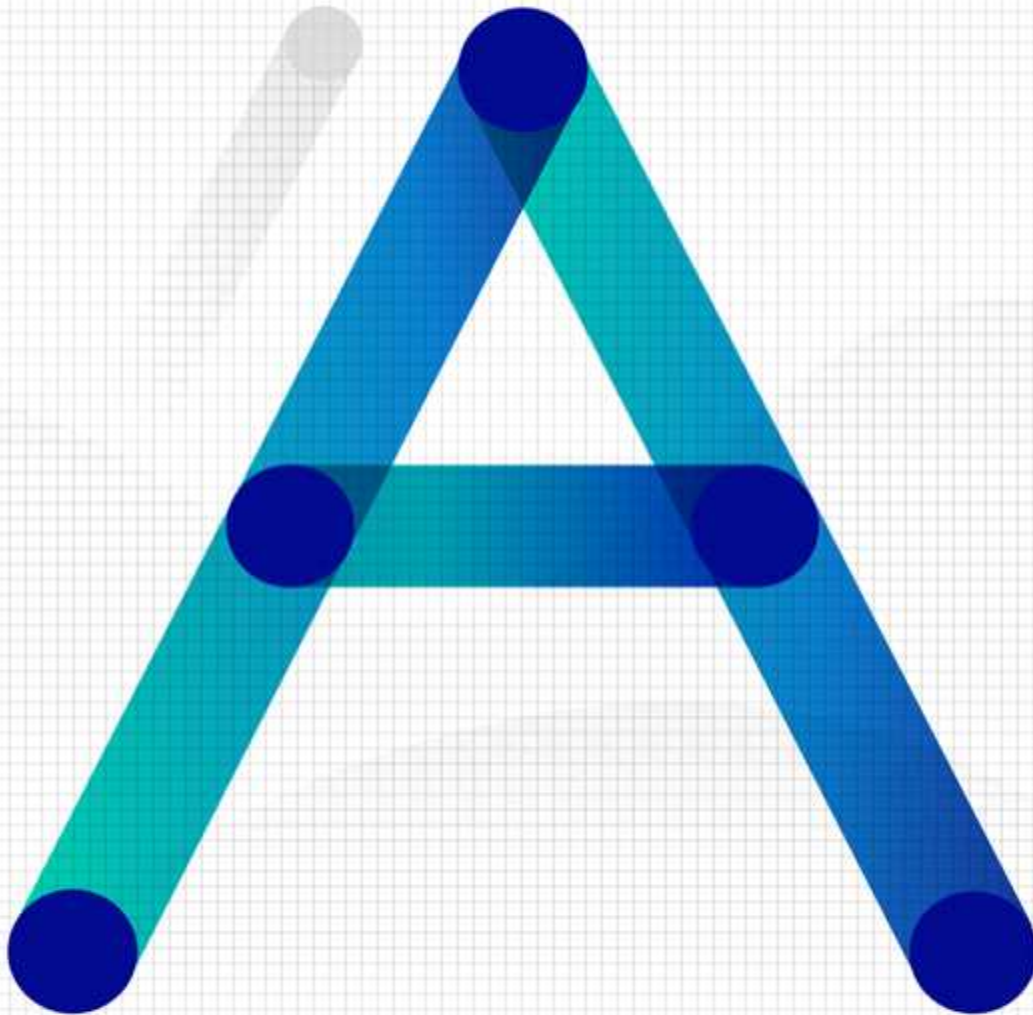
- 가. 세계경제전망
- 나. 국내경제전망

II. 주요 산업별 수출전망

- 가. 주요수주산업
- 나. 혁신성장산업
- 다. 주력수출산업

작성

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





작 성

선임연구원 양종서(6252-3586)

선임연구원 강정화(6252-3612)

선임연구원 김윤지(6252-3607)

선임연구원 성동원(6252-3611)

선임연구원 이미혜(6252-3608)

책임연구원 김호건(6252-3610)

책임연구원 이현진(6252-3609)



<요 약>

I. 국내외 경제전망

가. 세계경제전망

□ 2023년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 지속 및 글로벌 통화긴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돼 2%대 성장 전망

- 2022년 세계 경제는 러-우 전쟁, 코로나19 재확산, 주요국 통화긴축 영향 등으로 3% 초반 성장률 기록 예상
- 2023년에는 각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운용,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수요 둔화 및 중국 경제성장 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2%대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
-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증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 등으로 2023년 성장률은 0.5~1.0% 수준으로 둔화
- **(유로존)** 관광, 서비스 등은 회복되겠지만,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 유럽중앙은행의 통화긴축 등의 영향으로 2023년 0.5% 수준으로 성장세 위축
- **(신흥국)**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선진국 통화긴축 및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자본유출 등으로 경기둔화 리스크가 고조됨에 따라 3%대 후반 성장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 분	2022년 (IMF)	2023년		
		IMF	OECD	한국은행
전세계	3.2	2.7	2.2	2.2
선진국	2.4	1.1	2.2	-
미국	1.6	1.0	0.5	0.3
유로	3.1	0.5	0.5	△0.2
일본	1.7	1.6	1.8	1.3
신흥국	3.7	3.7	-	-
중국	3.2	4.4	4.6	4.5
인도	6.8	6.1	5.7	-
한국	2.6	2.0	1.8	1.7

주: IMF(10월), OECD(11월, 선진국은 G20), 한국은행(11월)



나. 국내경제전망

□ 2023년 국내경제는 금리상승에 따른 내수경기 부진,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증가세 약화 등으로 성장률은 2%에 미치지 못할 전망

- 2022년 상반기에는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소비가 개선되며 회복세를 유지했으나, 하반기 이후 수출 상승폭이 축소되며 2.6% 내외 성장
 - **(민간소비)** 2022년에는 소비심리 회복, 고용여건 개선 등으로 민간소비가 4.7% 증가하겠으나, 2023년에는 인플레이션 지속,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2%대 후반 성장 전망
 - **(설비투자)** 2022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경기 불확실성 증대로 IT투자 계획이 하향되면서 전년대비 투자 감소, 2023년에는 글로벌 경기둔화, 자본조달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3%대 감소 전망
- **(수출)** 주요국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교역상대국 경기둔화 영향으로 2023년 수출은 전년대비 1% 내외 감소 전망
 - **(‘22년 동향)** 원자재가격 상승 및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출물가 상승으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하반기 이후 수출 수요가 둔화되어 연간 수출액은 전년 대비 7% 내외 증가 예상
 - **(‘23년 전망)** 원유·원자재 가격 안정화,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 메모리 반도체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 내외 감소 전망

*세계무역증가율(IMF) : △8.2%('20)→9.7%('21)→6.7%('22^e)→4.5%('23^f)

대외거래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망		
		한국은행	KDI	해외경제 연구소	한국은행	KDI	해외경제 연구소
경상수지	883	250	230	-	280	160	-
수 출	6,444 (25.7)	6,890 (6.9)	6,992 (7.6)	6,900 (7.0)	6,630 (△3.8)	6,590 (△5.7)	6,830 (△1.0)
수 입	6,151 (31.5)	7,345 (19.4)	6,878 (19.9)	- -	6,840 (△6.9)	6,420 (△6.7)	- -

주: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수출은 한은·해외경제연구소는 통관기준, KDI는 상품수지 기준

자료: 한국은행(11월), KDI(11월) 전망 기준



Ⅱ. 주요 산업별 수출전망

가. 주요 수주산업

□ 선박 수주는 해운경기 둔화로 위축되나, 해외건설은 중동지역 발주 확대 등으로 증가 전망

- **(선박)** '23년에도 LNG선 신규 발주는 비교적 호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나, 고금리의 영향 등으로 일반상선시장에서 선주들의 관망세가 확산되며 발주량의 일시적 침체 예상
- **(해운)** '23년 해운수요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IMO의 탈탄소 환경규제 시행으로 폐선이 증가하며 일부 선종은 운임과 용선료 개선도 가능할 전망

* BDI 운임지수 전망 : ('22) 1,930(34.4%↓) → ('23) 2,050(6.2%↑) → ('24~'26) 2,000~2,200

- **(해양플랜트)** 탈탄소화 움직임 속에 신규 석유개발 투자 부진으로 해양플랜트의 양호한 수요 기대는 어려우나, 브라질 등 일부 해양유전 보유국의 투자와 FSRU의 수요 증가로 소량의 수주 가능 예상
- **(해외건설)** 지난 3년간 지연되어 왔던 중동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환율 상승에 따른 원가경쟁력 강화로 중동 및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수주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주요 수주산업 수주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 분	'22년 ^f	'23년 ^f	'24~'26년 전망
선 박	435 (5.9%)	210 (△51.7%)	320~390
해 양 플 랜 트	0 (△100%)	20 (-)	10~40
해 외 건 설	320 (4.6%)	350 (9.4%)	280~350

자료 : 해외경제연구소 자체 전망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나. 혁신성장산업

□ 장기적으로 시장 확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반도체 등은 단기적인 업황 악화로 어려움 발생 전망

- **(반도체)** 메모리반도체 수요 둔화 및 가격 하락, IT기기 수요 감소 등에 따른 시스템반도체 수출 둔화 등으로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1.5% 역성장 전망
- **(리튬이차전지)** 2023년 글로벌 리튬이차전지 시장은 전년 대비 3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리튬이차전지 수출도 글로벌 리튬이차전지 수요 증가와 함께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바이오)**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시밀러 수출과 위탁생산(CMO) 수요 중심의 의약품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 **(미래차)** 전기차는 미국 IRA* 및 유럽 RMA* 등 자국생산 우선 정책 등 리스크에도 수출성장세가 지속되고, 수소차 및 UAM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투자가 확대될 전망

*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원자재법(Raw Material Act)

혁신성장산업 수출 전망¹⁾

단위 : 억 달러

구 분	'22년 ^f	'23년 ^f	'24~'26년 연평균 증가율
반 도 체	1,309 (1.7%)	1,159 (△11.5%)	4%
리 튼 이 차 전 지	75 (30.2%)	90 (20.0%)	12%
바 이 오 주 ¹⁾	102 (20.2%)	127 (24.5%)	10%
미 래 차 ²⁾	77.8 (37.7%)	93 (19.6%)	20%

자료 : 해외경제연구소 자체 전망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주1) 의약품 수출액 기준

주2) 전기차 수출액 기준



다. 주력 수출산업

□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증가율 하락 예상

- **(일반기계)** 세계 경제성장 둔화와 고금리의 영향 등으로 전반적인 산업설비 투자가 저조하여 '23년 수출은 전년대비 약 2% 증가 예상
- **(석유화학)** '23년 평균 유가가 '22년 대비 약 7~8% 하락하는 가운데 글로벌 수요 둔화,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석유화학 수출은 약 10% 감소 전망
- **(자동차·자동차부품)**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완화로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확대가 예상되나, 금리 인상, 미국 IRA 등의 영향으로 3% 내외 수출 증가 예상
- **(철강)** 세계 경기 둔화 및 포항제철소 생산시설 복구 지연 등으로 '23년 철강재 수출은 전년 대비 약 16% 감소 전망
- **(디스플레이)** 국내기업의 LCD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LCD 수출은 감소하나, OLED 수출은 모바일용 도입 확대 추세에 따라 성장세 지속 전망

주력 수출산업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 분	'22년 ^f	'23년 ^f	'24~'26년 연평균 증가율
일 반 기 계	500 (△0.2%)	510 (2.0%)	4%
석 유 화 학	560 (1.8%)	505 (△10.0%)	3%
자 동 차·자 품	765.1 (10.5%)	792 (3.5%)	3%
철 강	380 (4.5%)	320 (△15.8%)	4%
디 스 플 레 이	248 (0.5%)	243 (△2.0%)	4%

자료 : 해외경제연구소 자체 전망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I. 국내외 경제전망

가. 세계경제전망

(1) 경제 성장

□ 2023년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 지속 및 글로벌 통화긴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돼 2%대 성장 전망

- 2022년 글로벌 GDP는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여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한 수요위축 등의 영향으로 3.2% 성장
- 2023년에는 각국의 통화긴축 정책 운용, 인플레이션 확대로 인한 수요 둔화, 중국 성장 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2022년보다 더 낮은 2%대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

※ 인플레이션 전망(IMF, 10월) : 세계 ('22) 8.8% →('23) 6.5%,
선진국 ('22) 7.2% →('23) 4.4%, 신흥국 ('22) 9.9% →('23) 8.1%

-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증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 등으로 2023년 성장률은 0.5~1.0% 수준으로 둔화
- **(유로존)** 관광, 서비스 등은 회복되겠지만,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 유럽중앙은행의 통화긴축 등의 영향으로 2023년 0.5% 수준으로 성장세 위축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 분	2022년 (IMF)	2023년		
		IMF	OECD	한국은행
전세계	3.2	2.7	2.2	2.2
선진국	2.4	1.1	2.2	-
미국	1.6	1.0	0.5	0.3
유로	3.1	0.5	0.5	△0.2
일본	1.7	1.6	1.8	1.3
신흥국	3.7	3.7	-	-
중국	3.2	4.4	4.6	4.5
인도	6.8	6.1	5.7	-
한국	2.6	2.0	1.8	1.7

주: IMF(10월), OECD(11월, 선진국은 G20), 한국은행(11월)



- 신흥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선진국 통화긴축 및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자본유출 등으로 경기둔화 리스크가 고조됨에 따라 3%대 후반 성장 전망
- (중국)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부동산 시장 위기 악화 등으로 2022년 3.2%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은 2023년에도 회복이 지연되면서 4.4%의 성장 전망

• 위험 요인 :

- ①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각국의 통화정책이 과잉 또는 과소로 운용돼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이 지연될 가능성
- ② 각국의 정책 환경 차이로 통화긴축 정책이 상이하게 운영됨에 따라 미국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국가간 긴장이 증가될 위험
- ③ 러-우 전쟁이 지속되면서 식품, 에너지 가격에 추가 충격이 발생해 인플레이션이 더 확대되고 장기화될 가능성
- ④ 선진국의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신흥국가에 광범위한 부채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
- ⑤ 중국 GDP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의 위기가 악화되면서 은행 부문 손실 증대, 재정 악화 등 중국의 성장 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



(2) 세계교역

□ 2023년 세계 교역량(상품·서비스) 증가율 2%대 전망

- 2022년 세계 교역량은 코로나19 회복 영향으로 서비스 교역은 증가했으나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중국 봉쇄 정책 등의 영향으로 4%대 증가
- 러-우 전쟁 영향으로 CIS지역 중심으로 무역량이 감소했으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원자재 보유국들의 수출입은 증가
- 2023년에는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및 주요국 긴축 정책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2%대 증가 전망
- 선진국 수입은 인플레이션 및 긴축정책 등의 영향으로 2022년 6.0%에서 2023년 2.0%로 하락, 개발도상국 수입은 CIS지역 무역 회복 등으로 2022년 2.4%에서 2023년 3.0%로 소폭 상승

세계 교역신장률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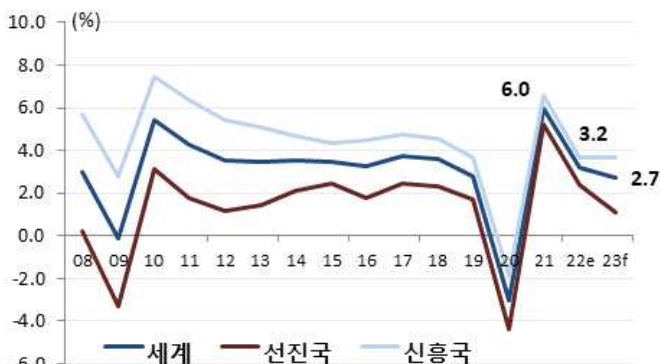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IMF	WTO	IMF	WTO	IMF	WTO
교역신장률		10.1	9.7	4.3	3.5	2.5	1.0
수입	선진국	9.5	-	6.0	-	2.0	-
	개발도상국	11.8	-	2.4	-	3.0	-
수출	선진국	8.7	-	4.2	-	2.5	-
	개발도상국	11.8	-	3.3	-	2.9	-

주: IMF는 상품·서비스 물량 기준, WTO는 상품 물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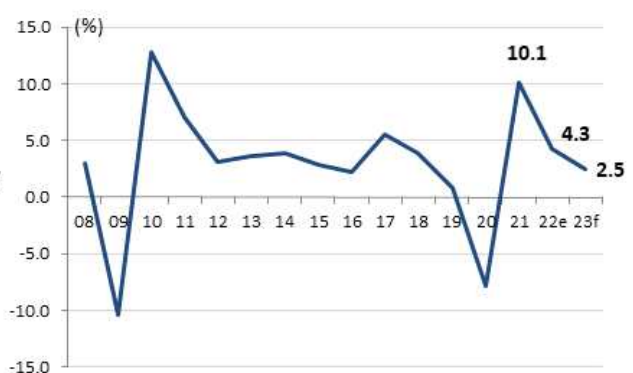
자료: IMF(10월), WTO(10월) 전망 기준

세계 경제성장률



자료: IMF(10월)

세계 교역신장률





(3) 국제금융시장

□ 국제 금리

-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미 연준의 긴축정책이 유지됨에 따라 주요국들도 연쇄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서는 등 불확실성 지속 전망
- 미국의 기준금리(4.25~4.50%, FOMC '22.12.15)는 '23년 중 5%대를 유지하겠으며 금리 인하는 '24년에나 단행될 전망
 - ※ 미 연준위원 기준금리 전망 평균 : ('23년말) 5.25%, ('24년말) 4.25%
- 유로존 기준금리(2.5%, ECB '22.12.15)도 '22년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최고치인 10%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금리 인상 지속 전망
- 장기금리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주요국 금리인상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하반기 이후 완화 전망
- 미 국채 수익률(10년물)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2022년 하반기 중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4%대를 넘어서기도 했으며, '23년에도 3%대 후반~4%대 초반을 유지할 전망

주요국 금리 전망

단위: %

구 분	2022년	2023년 1/4	2023년 2/4	2023년 3/4	2023년 4/4	비 고
미 국	3.91	4.01	3.88	3.72	3.50	T/B(10년물)
일 본	0.23	0.24	0.24	0.22	0.20	JGB(10년물)
독 일	2.11	2.30	2.19	2.07	1.90	Bund(10년물)

자료: Bloomberg, 국제투자은행전망 평균('22.12.15일자 기준, 2022년은 4분기말 전망치)



□ 환율

- 2023년 미 달러화는 인플레이션 압력 영향으로 연준의 통화긴축이 지속됨에 따라 강세 기조가 이어지겠으나 하반기 이후 다소 완화 전망
-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달러 강세도 당분간 유지될 전망
- 유로화는 러-우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리스크 및 경기둔화 가능성이 부각됨에 따라 약세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
- 일본 엔화는 통화 긴축에 나선 여타 중앙은행과는 달리 완화 기조를 고수하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차별화로 약세 압력이 지속되겠으나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
-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선회되고 일본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때까지 일본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엔화 약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
- 중국 위안화는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한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미국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약세 흐름 유지 전망

주요 국제환율 전망

구 분	2022년 평균	2023년 1/4	2023년 2/4	2023년 3/4	2023년 4/4
엔/달러	128	138	135	134	132
달러/유로	1.06	1.02	1.04	1.05	1.07
위안/달러	6.62	7.12	7.05	7.00	6.90

자료: Bloomberg, 국제투자은행전망 평균(22.12.15일자 기준, 2022년 평균은 3분기까지의 평균값)



□ [유가] 2022년 하반기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글로벌 경기둔화로 상반기 대비 하락세, 2023년 유가도 수요둔화 우려 지속으로 올해대비 하락 전망

- **2022년 1~9월 평균 국제유가는 전년동기 대비 약 51% 급등한 배럴당 100.4달러 기록**
 - 2022년 유가는 코로나19 영향력에서 벗어남에 따른 원유수요 회복세 및 공급의 제한적 증가로 인한 타이트한 수급 상황에서 상승세를 보이던 가운데 2월말 러-우 전쟁 발발로 인한 공급 불안감 확산으로 급등
 - 세계 2위의 산유국인 러시아는 세계 원유생산량과 수출량의 각각 12%를 차지하는데 (BP 통계, 2020년 기준),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수입 금지를 천명(3.8일)하는 등 공급 불안감이 확대, 이를 반영하여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대로 급등(3.9일, 두바이유, \$127.86/bbl)하며, 2008년 7월 이후 최고치 기록
 - 이후 러-우 협상 기대감, 중국 코로나19 재봉쇄로 인한 수요 위축 등으로 배럴당 100달러 수준으로 하락하기도 했으나 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계획, 중국의 봉쇄완화 및 드라이빙 시즌 수요회복 기대감 등으로 5월 배럴당 120달러대로 재상승
 - 6월 이후 글로벌 강경 긴축정책, 경기둔화 우려에 따라 유가 하락세로 전환하였으며, 하반기 유가는 지속 하락하여, 9월말 배럴당 80달러 중반대 기록(9.27일, 두바이유 84.25\$/bbl)
- **2022년 4분기 유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지속으로 상승폭이 감소한 배럴당 90달러 내외, 2022년 평균 유가는 전년대비 약 41% 상승한 배럴당 98달러 수준 전망**
 - 10월초 OPEC+의 200만 b/d 감산 발표(10.5일) 등 공급 타이트 우려 확대로 상승 전환했으나 수요 위축 우려로 재하락하는 등 배럴당 90달러선 전후에서 등락 (두바이유 10.4일 \$88.82/bbl → 10일, \$96.51/bbl → 12일, \$92.95/bbl)
- **2023년 유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 가운데 이란산 원유의 유입 가능성 등 올해 대비 하락, 다만 OPEC+의 감산이 큰 폭의 하락을 제한하여 배럴당 90달러 초반대 전망**
 - IMF는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3.8%로 제시하였으나 물가 급등, 강도 높은 각국의 긴축재정,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난 4월, 7월에 이어 10월에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2.7% 제시
 - 2021.1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이란 양국은 EU의 중재 하에 2021.4월부터



이란핵합의(JCPOA) 복원을 위한 회담을 지속 중으로 기대와 달리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JCPOA 복원 시 이란이 경제제재 해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90만 b/d의 원유를, 6개월 이내에 120만 b/d의 원유를 증산할 것으로 전망(블룸버그)

- OPEC+는 10.5일 비엔나 회의에서 200만 b/d 감산에 전격 합의, 다만 이미 지난 몇 개월간 OPEC+생산량이 생산쿼터에 못 미치고 있어 실질적인 감산량은 90만~110만 b/d 수준으로 예상
- EIA는 11월 보고서에서 2022년 4분기 평균 유가(WTI유)를 \$86.51/bbl로 전망하며 올해 평균 유가는 \$95.88/bbl, 2023년 전망치를 올해 대비 배럴당 약 6달러 낮은 \$89.33/bbl로 전망

EIA의 국제유가 전망

(단위: \$/배럴)

유종	2022년					2023년				
	Q1	Q2	Q3	Q4	평균	Q1	Q2	Q3	Q4	평균
WTI유	95.18	108.93	93.07	86.51	95.88	87.67	88.00	90.00	91.65	89.33
브렌트유	101.17	113.84	100.53	93.13	102.13	93.67	94.00	96.00	97.65	95.33

주) 2022년 Q1~Q3은 실적치, 2022년 Q4 이후 전망치

자료: EIA(2022.11.8일 발표)

□ [천연가스 가격] 2022년 러시아발 공급차질 우려에 따라 전년대비 대폭 상승, 2023년 천연가스 가격은 수급 타이트 완화로 소폭 하락 전망

- 2022년 1~9월 미국 천연가스 평균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약 2배 급등한 mmBtu당 6.66달러 기록
- 러-우 전쟁 영향에 따른 공급차질 우려 확산 등으로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2월 중순 이후 급등세를 보이며, 6월초 mmBtu당 9달러대 돌파(6.6일, NYMEX \$9.32/mmBtu)
-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6월말 mmBtu당 5달러 중반대로 급락했으나 여름철 수요 증가, 미국 LNG 수출 증가 기대감 등으로 7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여 8월말 9달러대 회복
- 9월, 유럽 천연가스 재고 부족 우려 완화 등 천연가스 가격이 하방압력을 받는 가운데 미국 천연가스 재고의 예상외 증가 등으로 천연가스 가격 하락세를 보이며 9월말 6달러 후반대 기록



- **2022년 4분기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공급 리스크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상승폭이 둔화된 mmBtu당 5.82달러, 2022년 평균가격(Henry Hub 기준)은 수급 타이트로 전년대비 약 66% 상승한 mmBtu당 6.49달러 전망¹⁾**
- 10월, 겨울철을 앞두고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며 목표수준을 상회하고, 단기적인 천연가스 공급위기 우려가 완화로 미국 천연가스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며 10월 말 5달러선 붕괴(10.21일, NYMEX \$4.959/mmBtu)
- 11월 들어 난방용 수요 증가 전망 등으로 급등하여 7달러선에 육박(11.7일, NYMEX \$6.940/mmBtu)한 이후 5달러 후반대로 소폭 하락
- **2023년 천연가스 가격은 수급 타이트 우려 완화로 올해 대비 mmBtu당 1.03달러 하락한 5.46달러 전망(EIA, 11월)**

EIA의 천연가스 가격 전망

(단위: \$/배럴)

	2022년					2023년				
	Q1	Q2	Q3	Q4	평균	Q1	Q2	Q3	Q4	평균
Henry Hub	4.66	7.48	7.99	5.82	6.49	6.21	5.04	5.20	5.40	5.46

주) 2022년 Q1~Q3은 실적치, 2022년 Q4 이후 전망치

자료: EIA(2022.11.8일 발표)

1) 발표시기는 2022년 10월



나. 국내경제전망

(1) 경제 성장

□ 2023년 국내경제는 금리상승에 따른 내수경기 부진,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증가세 약화 등으로 성장률은 2%에 미치지 못할 전망

- 2022년 상반기에는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소비가 개선되며 회복세를 유지했으나,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수출 상승폭이 축소되며 2.6% 내외 성장
- (민간소비) 2022년에는 소비심리 회복, 고용여건 개선 등으로 민간소비가 4.7% 증가하겠으나, 2023년에는 인플레이션 지속,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2%대 후반 성장 전망
- (설비투자) 2022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경기 불확실성 증대로 IT투자 계획이 하향되면서 전년대비 투자 감소, 2023년에는 글로벌 경기둔화, 자본조달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3%대 감소 전망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망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한은	IMF	OECD
국 내 총 생 산(GDP)	4.1	3.0	2.3	2.6	1.7	2.0	1.8
민 간 소 비 지 출	3.7	4.1	5.3	4.7	2.7	-	-
설 비 투 자	9.0	△6.4	2.7	△2.0	△3.1	-	-
실 업 륜	3.7	3.2	2.7	3.0	3.4	3.4	-
소 비 자 물 가	2.5	4.6	5.6	5.1	3.6	3.8	3.9

주: 2022~2023년 수치는 한국은행(11월), 2023년은 IMF(10월), OECD(11월)

□ 고용과 물가

- (고용) 2022년은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 2023년에는 취업자수 증가세는 지속되겠으나 경기 회복세 둔화로 증가폭이 점차 축소돼 취업자수는 9만명 증가, 실업률은 3.4% 전망
- (물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작황 부진으로 인한 농산물가격 상승, 환율 상승 등으로 2022년 소비자물가는 5.1% 상승, 2023년에는 원자재 가격 및 환율 안정화로 물가 상승압력이 상당 부분 완화돼 3.6% 수준으로 둔화될 전망



(2) 수출

□ 2023년 수출은 전년대비 1% 내외 감소 전망

- 주요국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교역상대국 경기둔화 영향으로 2023년 수출은 전년대비 1% 내외 감소 전망
- 2022년 수출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수출물가가 상승해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돼 전년대비 7% 내외 증가한 6,900억 달러 내외에 이를 전망
- 2023년에는 원유,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고, 주요국 긴축적 통화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 반도체 D램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 내외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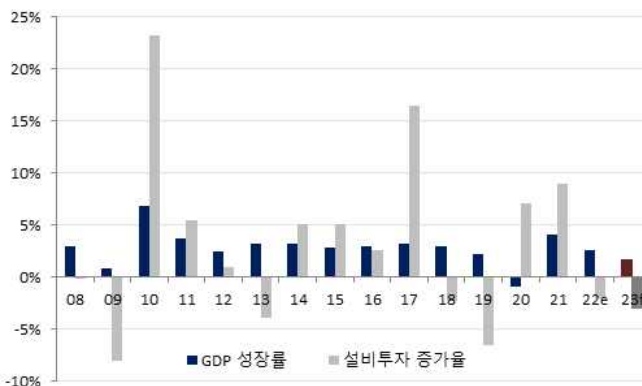
대외거래 전망

단위: 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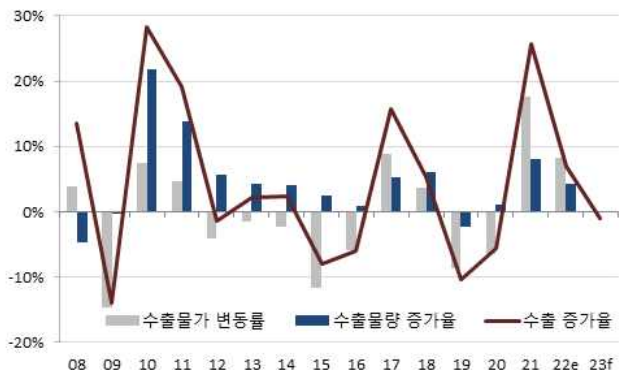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망		
		한국은행	KDI	해외경제연구소	한국은행	KDI	해외경제연구소
경상수지	883	250	230	-	280	160	-
수 출	6,444 (25.7)	6,890 (6.9)	6,992 (7.6)	6,900 (7.0)	6,630 (△3.8)	6,590 (△5.7)	6,830 (△1.0)
수 입	6,151 (31.5)	7,345 (19.4)	6,878 (19.9)	-	6,840 (△6.9)	6,420 (△6.7)	-

주: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수출은 한국은행·해외경제연구소는 통관기준, KDI는 상품수지 기준
자료: 한국은행(11월), KDI(11월) 전망 기준

경제성장률 및 설비투자 증가율



수출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관세청



(3) 국내 금융시장

□ 금리

- 2023년 주요국의 긴축정책 및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3%대 중후반까지 상승 가능할 전망
- 한국은행은 당분간 5~6%대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한미 금리격차에 대한 부담, 달러화 강세로 인한 환율 상승 압박 등의 영향으로 2023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전망

2023년 금리 전망

단위: %

구 분	2022년	2023년 1/4	2023년 2/4	2023년 3/4	2023년 4/4
국고채권(3년물)	3.83	4.04	3.87	3.63	3.44

자료: Bloomberg, 국제투자은행전망 평균('22.12.15 기준, 2022년은 4분기말 전망치)

□ 환율

- 2023년 중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미 달러화의 강세 영향을 받는 가운데 하반기부터 무역수지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달러당 1,300원대 내외 등락 전망
- 통화정책 및 경기지표에 따라 등락하며 단기적으로 달러당 1,400원 수준에 이르는 불안정한 양상 전개 가능

2023년 환율 전망

단위: 원/달러

구 분	2022년 평균	2023년 1/4	2023년 2/4	2023년 3/4	2023년 4/4
원/달러	1,292	1,361	1,340	1,300	1,280

자료: Bloomberg, 국제투자은행전망 평균('22.12.15 기준, 2022년 평균은 '22.12.15까지의 평균값)



Ⅱ. 주요산업별 수출전망

가. 주요 수주산업

(1) 조선(부분품 포함)

□ 2022년 신조선 수주량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양호한 실적 기록

- 2022년 세계 신조선 시장은 카타르발 물량을 포함, 사상 최대의 LNG선 발주물량과 높은 운임으로 선사들의 수익성이 호전된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연간 신조선 건조량 이상의 비교적 양호한 발주 수요를 기록
- 다만, 이들 2개 선종을 제외한 나머지 선종시장은 선주들이 관망세를 지속하며 침체수준의 발주를 기록함
- 또한, 주요 환경규제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며 규제대응 수요가 잠재되어 있음에도 신조선가의 급상승과 금리상승, 경기둔화 등의 요인으로 하반기 이후 신조선 발주량은 저조한 수준으로 감소
- 2022년 신조선(선박, 해양) 수주량은 전년대비 7.5% 감소한 1,650만CGT 예상
 - 11월 누적 선박 수주량은 전년동기 대비 7.7% 감소한 1,575만CGT이며 2022년 연간 수주량은 전년대비 6.5% 감소한 1,650만CGT 예상
 - 현재까지 해양플랜트 수주는 없으며 연말까지도 수주를 기대하기 어려움
- 2022년 신조선(선박, 해양) 수주액은 전년대비 2.2% 감소한 435억달러 예상
 - 11월 누적 선박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5.5% 증가한 418.7억달러이며 2022년 연간 수주액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435억달러 예상
 - 해양플랜트 수주액은 "0"
- 2022년 수출액(해양플랜트 포함)은 전년대비 26.0% 감소한 170억 달러 예상
 - 국내 조선업계의 부진한 2020년 수주로 2022년 인도물량을 정상적으로 확보하지 못하였고 당시의 선가도 낮은 수준이었으므로 2022년 수출은 크게 감소함
 - 11월까지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6.8% 감소한 157.9억달러



□ 2023년 신조선 수주는 대폭 감소가 예상되나 수출은 큰 폭 증가

- 2023년 주요 해상환경규제가 시행되며 많은 폐선과 교체물량 수요가 잠재되어 있음
- 그러나 높은 금리수준과 고금리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선주들의 관망세가 일시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신조선가 하락을 기대하며 발주시점을 늦추는 경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다만, EEXI, CII 등 주요 규제의 시행으로 노후선 폐선이 본격화되고 선주들의 신조선 발주 계획은 내부적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음
- 하반기 이후 인플레이션 억제 확인 후 미 연준의 금리 하락이 단행된다면 잠재된 신조선 수요가 발주로 실현되며 급증할 가능성도 존재함
- 신조선 시장의 부진은 2023년 일시적 침체이며 2024년 이후 회복 및 재활성화 전망
- 2023년도 신조선(선박, 해양) 수주량은 전년대비 약 42% 감소한 870만CGT 전망
 - 선박 수주량은 전년 대비 48.5% 감소한 850만CGT 전망
 - 해양플랜트 수주량은 약 4기의 FPSO와 FSRU 수주 가능 예상으로 20만CGT 내외의 수주 전망
- 2023년 총 신조선(선박, 해양) 수주액은 전년대비 약 48% 감소한 225억 달러 수준 전망
 - 선박 수주액은 전년대비 51.7% 감소한 210억달러 수준 전망
 - 해양플랜트 수주액은 15억달러 내외 전망
- 2023년 선박(해양플랜트 포함) 수출은 2021년 이후의 수주 호전과 선가상승 등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약 41% 증가한 240억달러 내외가 될 전망

선박 수주 및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백만CGT, 억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망
						1~11월	전망	
수주량	선박	13.5 (74.7)	10.0 (△26.1)	8.7 (△13.0)	17.5 (101.2)	15.8 (△7.7)	16.5 (△6.5)	8.5 (△48.4)
	해양	0.0 (△100)	0.1 (전년도 0)	0.2 (252.3)	0.2 (△12.2)	0 (△100)	0 (△100)	0.2 (전년도 0)
수주액	선박	269.7 (85.2)	218.5 (△19.0)	187.6 (△14.1)	409.0 (118.0)	418.7 (5.5)	435 (5.9)	210 (△51.7)
	해양	0.0 (△100)	9.7 (전년도 0)	7.5 (△22.6)	34.1 (353.1)	0 (△100)	0 (△100)	15 (전년도 0)
수출액		212.8 (△49.6)	201.6 (△5.2)	197.5 (△2.0)	229.9 (16.4)	157.9 (△26.8)	170 (△26.0)	240 (41.2)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수출액은 해양플랜트 포함

자료: Clarkson, 산업통상자원부, 2022~2023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2) 해운

□ 2022년 해운 시황은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의 운임 하향, 탱커 운임 호전 등 선종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

- 코로나19 영향에 의해 발생한 물류정체의 해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경기 둔화 등의 변수가 복잡하게 작용하며 선종별로 다른 양상이 나타남
 -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은 물류정체가 점차 해소되고 경기둔화의 영향을 받으며 운임이 비교적 빠르게 하락하는 흐름을 보임
 - 반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에 빠졌던 탱커 시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서유럽의 석유 등 에너지제품 수입선이 기존 러시아로부터 미국, 중동 등지로 다변화되며 원거리 효과에 의해 운임과 용선료가 회복추세로 전환됨
- 벌크선은 중국의 철강 감소 기조와 자국산 석탄 증산, 경기둔화, 코로나19로 발생한 항만 정체의 점진적 해소 등으로 전년 대비 운임이 빠르게 하락함
 - 벌크선 운임지수 BDI의 11월까지 평균치는 1,983으로 전년동기 대비 32.7%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22년 평균치는 1,930 수준으로 예상되어 하락 폭은 전년대비 34.4%로 더욱 커질 전망
- 컨테이너선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재 수요 둔화, 항만 정체의 점진적 해소 등으로 운임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나 전년도 운임상승 폭이 매우 컸으므로 2022년 하반기까지도 주요 원양노선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중국발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CCFI의 11월까지 평균치는 2,951로 전년동기 대비 16.7% 높은 수준이며 2022년 전체 평균으로는 전년대비 약 5% 높은 2,750 내외 예상
 - 2020년 4분기 이후 2022년 1분기까지 지속적으로 빠르게 상승하였으므로 2022년 상반기 지수가 하향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상반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므로 평균치는 전년대비 높은 수준으로 계산되나 2분기 이후 빠르게 하락 중임
- 탱커의 경우 전년대비 석유 수요가 증가하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후 유럽의 석유수입 노선이 길어지며 운임이 회복추세로 반전됨
 - 미국, 중동 등지에서 유럽으로 석유운송에 주로 사용되는 수에즈막스의 경우 운임과 용선료가 개전 직후인 3월부터 반등하였고 VLCC는 5월부터 반등하여 8월부터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 310K급 VLCC 1년 정기용선료는 11월까지 평균 1일당 23,835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2.5%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2022년 전체 평균치는 1일당 25,500달러 내외로 전년 대비 약 22% 높은 수준으로 예상



□ 2023년 해운 시황은 전반적으로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환경규제 효과가 본격화되며 폐선이 증가하는 등의 공급감소 효과도 동반되어 선종에 따라 운임과 용선료의 개선도 가능할 전망

- 2023년 해운 수요는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경기둔화, OPEC 감산 등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증가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IMO의 강력한 해상환경규제의 시행으로 노후선에 대한 폐선이 본격화되며 운임 등 시황에 긍정적 영향도 기대됨
- 벌크선 시장은 중국 등 주요국의 성장세 둔화로 수요 증가율은 미미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폐선량에 비해 신규 공급 선복 규모가 작아 공급측 조정에 의한 소폭의 시황 개선이 기대됨
- 연평균 BDI는 약 2,050으로 전년대비 6.2% 높은 수준 전망
- 탱커의 경우 전쟁이 지속되거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지속 가능성이 높아 원거리 교역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OPEC의 석유생산 감소로 해운수요 감소 가능성도 있으나 폐선량 대비 신규공급이 작은 수준으로 예상되어 시황개선 지속 전망
- 310K급 유조선 1년 정기용선료의 2023년도 평균치는 전년 대비 64.7% 상승한 1일당 42,000달러 내외 전망
- 컨테이너선은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해운수요 증가 기대가 어려우며 2021년의 대량 발주로 폐선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규 공급이 많아 운임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
- 2023년 CCFI는 전년대비 약 60.0% 낮은 연평균 1,100 수준 전망

해운 평균 운임지수 현황 및 전망

단위: 용선료는 \$/day, 지수,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망
					1~11월	전망	
BDI	1,353 (18.1)	1,353 (0.0)	1,066 (△21.2)	2,943 (176.1)	1,983 (△32.7)	1,930 (△34.4)	2,050 (6.2)
CCFI	818 (△0.2)	824 (0.7)	984 (19.5)	2,616 (165.7)	2,951 (16.7)	2,750 (5.1)	1,100 (△60.0)
탱커용선료	22,899 (△15.5)	36,358 (58.8)	39,788 (9.4)	20,932 (△47.4)	23,835 (12.5)	25,500 (21.8)	42,000 (64.7)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탱커 용선료는 310K급 VLCC 기준

자료: Baltic 해운거래소, Clarkson, 상해항운교역소, 2022~2023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3) 해외건설

□ 2022년 해외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4.6% 증가한 320억 달러 예상

- 2022년 11월까지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25.8% 증가한 268억 달러를 기록 중이며, 올해 수주액은 3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 11월까지 아시아지역 수주액은 111억 달러를 기록해 최대 수주지역으로 부상하였으며, 중동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29.3% 증가한 75억 달러 기록 중
- 11월까지 인프라 수주액은 발전 및 전기시설 수주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15.7% 증가한 102.3억 달러를 기록해 올해 예상치 130억 달러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

□ 2023년 해외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9.4% 증가한 350억 달러 전망

- 글로벌 금리인상으로 세계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내 건설경기 도 정점을 지나 하향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2023년 세계 건설시장 전망치는 당초 12.5조 달러에서 11.5조 달러로 조정되는 등 2023년 세계 건설시장도 글로벌 긴축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
- 지난 3년간 지연되어 왔던 중동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환율상승에 따른 원가경쟁력 강화로 중동 및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수주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시아를 중심으로 여전히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글로벌 전기 수요 증가로 관련 발전 인프라 수요가 증가할 전망
- 또한 국내 건설경기 악화로 수주물량 확보를 위한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해외 수주 활동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

해외건설 수주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망
					1~11월 ^P	전망	
해외건설 수주액	321 (10.7)	223 (△30.5)	351 (57.4)	306 (△12.8)	268 (25.8)	320 (4.6)	350 (9.4)
인프라 수주액	102 (△19.7)	68.9 (△32.5)	149.5 (117.0)	129.0 (△13.7)	102.3 (15.7)	130 (0)	140 (7.7)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해외건설 수주액은 인프라(토목, 발전, 전기시설 등), 건축, 플랜트, O&M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

자료: 해외건설협회, 2022년 및 2023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나. 혁신성장산업

(1) 반도체

□ 2022년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1,309억 달러 내외 예상

- 2022년 1~11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5.0% 증가한 1,216억 달러
-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6.4% 감소한 693억 달러 기록
 - 상반기는 반도체 수요기업이 공급망 붕괴 위험 등으로 안전재고를 축적하면서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건조했음
 - 6월부터 하반기 IT기기 수요 둔화 우려 등으로 반도체 구매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7월부터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 지속
-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파운드리 수주 호조 등으로 29.4% 증가한 464억 달러 기록
- 2022년 반도체 수출은 하반기 수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

□ 2023년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1.5% 감소한 1,159억 달러로 전망

- 2023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4% 역성장 전망
 - * 2023년 반도체 시장 성장률 전망: (가트너, '22.11) △3.6%, (WSTS, '22.11) △4.1%
-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17%, 비메모리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0~3.5% 성장 전망
 - * 메모리반도체 시장 성장률 전망: (가트너, '22.11) △16.2%, (WSTS, '22.11) △17.0%
 - * 비메모리반도체 시장 성장률 전망: (가트너, '22.11) 3.5%, (WSTS, '22.11) △0.2%
-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반도체 업황 악화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
 - * 반도체 수출중 메모리반도체 비중('22.1~11): 57%
- 2023년 상반기에 반도체 재고조정이 완료되면서 3분기부터 반도체 수요 회복이 기대되나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하반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소폭 반등하는 수준 예상
 - * D램 가격 전망(달러): ('22.4분기)2.20 → ('23.1분기)2.05 → (2분기)2.00 → (3분기)1.88 → (4분기)1.76
 - * 낸드 가격 전망(달러): ('22.4분기)4.56 → ('23.1분기)4.44 → (2분기)4.33 → (3분기)4.35 → (4분기)4.54

반도체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망
						1~11월 ^P	전망	
수출액	997 (60.2)	1,281 (28.6)	952 (△25.7)	1,003 (5.4)	1,288 (28.4)	1,216 (5.0)	1,309 (1.7)	1,159 (△11.5)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2~2023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2) 리튬이차전지

□ 2022년 리튬이차전지 수출액은 전년 대비 30.2% 증가한 75억 달러 예상

- 2022년 11월까지 리튬이차전지 수출액은 전년 대비 25.5% 증가한 65.9억 달러를 기록
- 세계 각국의 친환경차 의무생산제도 도입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 및 전기자동차 기술 발전으로 글로벌 전기자동차 시장은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
- 리튬이차전지 수출은 미국 및 유럽의 전기자동차 수요증가로 전년에 이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 중

□ 2023년 리튬이차전지 수출액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90억 달러 전망

- 2023년 글로벌 리튬이차전지 시장은 전년 대비 3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리튬이차전지 수출도 글로벌 리튬이차전지 수요 증가와 함께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하지만 국내 주요 리튬이차전지 생산기업들은 고객 확보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 현지 생산시설을 늘리고 있어, 수출 증가율은 글로벌 수요 증가 대비 낮아질 전망

리튬이차전지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망
					1~11월 ^p	전 망	
수출액	43.9 (24.7)	46.8 (6.7)	48.8 (4.3)	57.6 (18.1)	65.9 (25.5)	75 (30.2)	90 (20.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리튬이온배터리는 HS코드 850760 기준

자료: 무역협회, 2022년 및 2023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3) 바이오(의약품 중심)

□ 2022년 의약품 수출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102억 달러 예상

- 2022년 의약품 수출액이 바이오시밀러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20% 증가
- 2021년 수출증가세를 견인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키트 수출은 감소했으나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견조한 수출 성장세, 의약품 위탁생산(CMO)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2022년 의약품 수출은 전년에 이어 20% 수준의 높은 증가세 지속

□ 2023년 의약품 수출은 올해 대비 약 25% 증가한 127억 달러 전망

-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시밀러 수출과 CMO 수요 증가를 중심으로 의약품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 EU가 바이오시밀러의 오리지널 의약품 대체 처방을 공식화하며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국내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의 유럽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 * 셀트리온은 현재 유럽시장에서 램시마, 램시마SC, 트룩시마, 허쥬마에 이어 2022.8월 베그젤마 판매허가 획득
- **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3종(엔브렐, 휴미라,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및 항암제 2종(허셉틴,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를 유럽시장에 판매 중
- 다만 전세계적인 바이오시밀러 경쟁 심화로 큰 폭의 증가는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

의약품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망
					1~11월 ^P	전 망	
수출액	37.2 (17.3)	41.0 (10.0)	70.5 (71.8)	84.9 (20.5)	83.5 (12.9)	102 (20.2)	127 (24.5)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MTI 226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및 2023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4) 미래차

□ 2022년 전기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37.7% 증가한 77.8억 달러 예상

- 주요국의 환경규제 강화 및 전기차 지원 등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에 따라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
 - 전 세계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21년 450만대에서 35% 이상 증가하여 '22년에 615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
 - '22년 전 세계 수소전기차 판매량은 전년과 비슷한 1만5천여 대 수준 예상
 - '21년 전기자동차 수출의 76.4%를 차지하던 유럽의 비중은 '22년 49.4%로 축소되었으며 북미의 비중은 18.4%에서 39.7%로 확대
- ※ '22년 1~11월 대륙별 전기차 수출액 비중: 유럽(49.4%), 북미(39.7%), 아시아(3.9%), 중동(3.0%), 오세아니아(3.0%)

□ 2023년 전기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19.6% 증가한 93억 달러 전망

- 높은 인플레이션 및 금리 상승으로 전기자동차 시장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
- 한국의 가장 큰 수출대상지역인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자동차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 존재
 - 영국과 독일 등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축소시키는 등 유럽 전기자동차 시장 성장세 둔화가 우려됨
 -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현지생산 규정에 따라 한국 전기자동차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전망이며 한국 정부는 미국의 IRA 세부 규정 마련 절차에 적극 대응 중

전기자동차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망
					1~11월 ^p	전 망	
수출액	10.9 (159.4)	23.5 (115.4)	39.0 (65.9)	56.5 (44.7)	70.8 (43.5)	77.8 (37.7)	93 (19.6)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전기자동차는 MTI 741400 기준

자료: 무역협회, 2022년 및 2023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다. 주력 수출산업

(1) 일반기계

□ 2022년 일반기계 수출은 전년도와 유사한 500억 달러 규모 예상

- 주요국들의 산업생산 회복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중 양호한 증가세가 나타났으나 금리상승과 경기둔화로 하반기 중 수출이 크게 둔화되거나 월별 감소도 나타남
- 11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465.4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7% 증가 (11월말 산업부 집계치 기준)
- 주요 기종별로 건설광산기계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6.6% 증가하였고 원동기 및 펌프 2.5%, 금속공작기계 11.3% 등 기초 및 산업기계 주요 기종이 대부분 증가세를 보였으나 광학기기 16.5%, 금형 15.8% 등 일부 기계류는 감소 기록 (10월 누적 무역협회 집계치 기준)
- 국가별로 대미 산업기계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14.3%, 기초산업기계 수출이 10.4% 등 크게 증가한 반면, 대중 수출은 산업기계 19.9%, 기초산업기계 16.2% 등의 큰 감소세를 나타내 대조를 보임 (10월 누적 무역협회 집계치 기준)

□ 2023년도 일반기계 수출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약 510억 달러 전망

- 2023년에는 경기둔화,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저조한 투자가 예상되나 미국의 전략적 투자 지속 등으로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중국의 경제 성장세 둔화 등은 악재요인이 될 전망

일반기계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 망
					1~11월	전망	
수출액	535.6 (10.2)	525.6 (△1.9)	478.9 (△8.9)	500.8 (9.5)	465.4 (2.7)	500 (△0.2)	510 (2.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일반기계는 MTI 71(기초산업기계), 72(산업기계), 75(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79(기타기계류)의 합

자료: 무역협회, 2022~2023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2) 석유화학

□ 2022년 석유화학 수출은 전년 대비 약 2% 증가한 560억 달러 예상

- 2022년 1~3분기 평균 유가가 전년 대비 50% 이상 급등한 배럴당 100.4달러를 기록하며 석유화학 수출단가도 동반상승, 동기간 석유화학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7.2% 상승한 434억 달러 기록
- 다만 6월 이후 유가가 하락세로 전환하며 하반기로 갈수록 전년동월 대비 유가 상승 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석유화학제품 수출액은 6월 이후 전년동월 대비 감소로 전환한 뒤로 월별 감소율이 점차 확대*
- * 석유화학수출액 월별 증감율 추이: ('22.6월) $\Delta 0.7\%$ \rightarrow (7월) $\Delta 2.1\%$ \rightarrow (8월) $\Delta 11.9\%$ \rightarrow (9월) $\Delta 15.1\%$
- 역내 공급과잉 지속 및 달러화 강세,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구매력 약화로 수출단가 하락, 설비가동률 하락에 따른 생산 감소,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자급률 제고 등의 영향
- 2022년 4분기에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경기둔화 지속에 따른 수요 위축 등으로 석유화학 수출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의 하락 예상

□ 2023년 석유화학 수출은 올해 대비 약 10% 감소한 505억 달러 전망

- 2023년 평균유가는 2022년 대비 약 6~7% 하락한 배럴당 90달러 초반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침체, 역내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국내 석유화학 수출 하락폭은 유가 하락폭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석유화학제품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망
					1~11월 ^P	전 망	
수출액	500 (11.8)	426 ($\Delta 14.8$)	356 ($\Delta 16.4$)	551 (54.8)	506.6 (0.7)	560 (1.8)	505 ($\Delta 10.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및 2023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3)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2022년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14.7% 증가한 532.7억 달러, 자동차부품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232.3억 달러 예상

-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및 중국의 도시 봉쇄 등으로 부품 공급난으로 인한 자동차 생산 차질에도 고부가차량 판매 확대 및 수출단가 상승으로 수출액은 전년대비 14.7%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승용차 평균 수출단가(만 달러): ('19) 1.60 → ('20) 1.76 → ('21) 2.04 → ('22 上) 2.08

- 평균 수출단가가 높은 친환경자동차의 수출액 비중 확대 등으로 '21년 자동차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

※ 친환경자동차 수출액 비중(%): ('19) 13.9 → ('20) 19.1 → ('21) 25.1 → ('22) 29.7

- 높은 원/달러 환율에 따라 원자재 및 운송비용 부담이 가중될 전망

□ 2023년 자동차·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각각 전년 대비 4.6% 증가한 557억 달러, 1.2% 증가한 235억 달러 전망

-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완화로 장기간 이어진 자동차 생산차질이 개선됨에 따라 IHS마킷, LMC Automotive 등은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22년 대비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한국 자동차 수출은 확대할 전망
- 다만,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자동차 수요 둔화 등의 리스크 존재
- '23년 자동차 생산량 증가가 기대되어 자동차 부품 수출 증가가 전망됨
- 대 베트남, 인도네시아 수출은 증가가 기대되나 대 중국 및 러시아 수출은 둔화 전망

자동차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망
					1~11월 ^P	전망	
자동차 수출액	408.9 (△1.9)	430.4 (5.3)	374.0 (△13.1)	464.6 (24.2)	486.7 (15.3)	532.7 (14.7)	557 (4.6)
자동차부품 수출액	231.2 (△0.1)	225.4 (△2.5)	186.4 (△17.3)	227.8 (22.2)	213.3 (3.3)	232.3 (2.0)	235 (1.2)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무역협회, 2022년 및 2023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4) 철강

□ 2022년 철강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4.5% 증가한 380억 달러 예상

- 2022년 상반기 중 중국이 감산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세계 철강공급 부족이 지속되며 매우 큰 폭의 수출증가세를 나타냄
- 그러나 하반기에 접어들어 경기둔화로 수출증가세 역시 크게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9월 중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태풍피해로 후공정 라인이 복구되지 못하여 9월 이후 수출이 크게 감소함
-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복구가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데다 10월에는 현대제철 파업까지 겹쳐 4분기 이후 국내 수요분에 대한 공급도 부족이 예상되며 금년도 남은 기간의 철강 수출은 어려움 예상
- 11월까지 철강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8.7% 증가한 356.1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금년도 철강 총 수출액은 전년대비 약 4.5% 증가한 380억달러 내외 예상

□ 2023년 철강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16% 감소한 320억 달러 내외 전망

- 2023년 경기둔화로 세계 철강수요는 증가추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포항제철소의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수요분에 대한 공급마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될 전망
- 이에 따라 국내 철강재의 수출여력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 수출은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

철강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 망
					1~11월	전망	
수출액	339.7 (△0.7)	310.4 (△8.6)	265.6 (△14.5)	363.7 (36.9)	356.1 (8.7)	380 (4.5)	320 (△15.8)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산업부, 2022~2023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5) 석유제품

□ 2022년 석유제품 수출은 전년 대비 약 70% 급증한 650억 달러 예상

- 2022년 배럴당 100달러 내외의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유지되는 석유제품 수요에 힘입어 수출단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2022년 1~3분기 석유제품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약 87% 상승한 491억 달러 기록
- 2022년 유가급등 영향으로 석유제품 단가가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여행수요 회복 및 러시아발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차질 우려로 인한 대체 발전연료인 경유 수요 증가 등 석유제품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며, 2022년 3월 이후 7개월 연속 석유제품 월 수출액이 50억 달러 상회
- 2022년 4분기에도 유가 상승, 동절기 수요 증가 등으로 석유제품 수출액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유가 상승폭 축소,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요위축 등의 영향으로 수출액 상승폭은 약 50%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 2023년 석유제품 수출은 올해 대비 약 5% 하락한 620억 달러 전망

- 2023년 유가가 2022년 대비 약 6~7% 하락한 90달러 초반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통화긴축 정책 및 고유가로 인한 석유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석유제품 수출액이 올해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

석유제품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망
					1~11월 ^P	전 망	
수출액	464 (32.3)	407 (△12.2)	242 (△40.6)	381 (57.7)	582.2 (70.0)	650 (70.5)	620 (△4.6)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및 2023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6) 이동통신장비

□ '22년 이동통신장비 수출은 전년 대비 16.0% 감소한 20.4억 달러 예상

- '22년 11월까지 이동통신장비 수출은 전년 대비 16.3% 감소한 18.5억 달러 기록
-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24.5%), 베트남(20.7%), 일본(9.0%), 중국(홍콩 포함, 8.2%), 인도(8.0%), 멕시코(3.3%), 영국(2.4%) 순
- 삼성전자가 체결한 버라이즌과의 무선통신 솔루션 공급계약(66억 달러 규모), 컴캐스트와의 장비공급 계약 등으로 미국이 국내 통신장비 1위 수출대상국 유지
- 북미와 유럽의 5G 활성화로 북미·유럽 지역으로의 통신장비 수출액이 증가
- 권역별 증계기 및 모뎀 수출액 &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22.8월 누계): 아시아(2.8억 달러, △25.2%), 북미(2.0억 달러, +50.2%), 유럽(1.2억 달러, +85.6%)
- '22.4월 기준 통신장비 분야 생산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13.5% 감소하고 재고지수는 37.0% 증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

□ '23년 이동통신장비 수출은 올해 대비 2.0% 증가한 20.8억 달러 전망

- 미국·영국·독일을 중심으로 오픈랜*이 활성화됨에 따라 통신장비 시장점유율 확대 가능성이 존재

*오픈랜(Open RAN): 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개방형 표준에 따라 구축하는 형태를 뜻하며 통신장비 연계성이 줄어들고 기지국 설치 시 다양한 회사의 통신장비 혼용 가능

- 4G-5G 장비 연계성에 따른 기존 3강(화웨이·에릭슨·노키아)의 선점효과가 사라지며 추가적인 5G 시장확보가 가능
- 통신성능의 결정요소를 HW에서 SW로 이동시켜 중국 통신HW기업(화웨이·ZTE)의 영향력을 줄이고 미국 SW기업(퀄컴·시스코)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
- 5G 특화망(사설망) 활용이 시도되는 중, 추가적인 통신장비 수요 발생 가능
- 네이버, LG CNS, SK네트웍스 등은 최근 '이음 5G'(국내 5G 특화망) 사업자 등록

이동통신장비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망
					1~11월 ^P	전 망	
수출액	24.6 (△19.5)	17.9 (△27.1)	19.6 (9.6)	24.3 (23.8)	18.5 (△16.3)	20.4 (△16.0)	20.8 (2.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무역협회, 2022~2023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7) 디스플레이

□ 2022년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0.5% 증가한 248억 달러 예상

- 2022년 1~11월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8% 증가한 228억 달러
- OLED 수출(수출비중 62%)은 스마트폰의 OLED 탑재율 상승, 수요처 다변화(노트북 등)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8.4% 증가한 141억 달러 기록
- LCD 수출(수출비중 23%)은 코로나19 특수 종료 후 패널 가격 하락, 한국기업의 LCD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9% 감소한 52억 달러 기록
- * 삼성디스플레이는 국내 LCD TV 패널 생산 중단(6월)하며 LCD사업에서 철수

□ 2023년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 대비 2.0% 감소한 243억 달러로 전망

- 2023년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은 대화면 선호, 고부가 OLED 패널 시장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7% 성장한 1,248억 달러로 전망 (옴디아, '22.10)
- LCD 시장은 전년 대비 △3.5% 성장한 755억 달러, OLED 시장은 전년 대비 8.7% 성장한 477억 달러 전망
- LCD 수출은 한국기업의 LCD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하나 OLED 수출은 고부가 패널 수요증가, 수요처 다변화 등으로 성장 지속 전망
- (LCD) LG디스플레이는 국내 LCD TV 패널 생산을 2022년 12월에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며 IT기기용 LCD 패널(모니터 등)의 국내 생산은 지속할 전망
- (OLED) 코로나19 이후 자산 양극화 심화로 프리미엄TV, 플래그십 스마트폰 수요는 견조하나 중저가 스마트폰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기업 패널 탑재 증가 전망

디스플레이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망
						1~11월 ^P	전 망	
수출액	303 (7.8)	278 (△8.4)	218 (△21.3)	207 (△5.1)	247 (19.0)	228 (2.8)	248 (0.5)	243 (△2.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2~2023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